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7.12.6(수) / 총2매(본문2)
담당부서	해외건설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성호, 서기관 문현규, 주무관 김형민 ·☎ (044) 201-3518, 352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**“국토부, 청년층의 해외건설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”**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“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\*”은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·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금년과 유사한 27.9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.
- \*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기업 중 해당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파견비, 훈련비 등을 지급
- 현재 OJT 지원사업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원하는 건설업계의 특성상 비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,
  - 내년부터는 청년층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OJT 훈련대상 선정 시 기업별 지원인원 확대, 훈련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‘18년도 사업참여 인력 모집공고\*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.

\* ‘18년도 1월 초 모집공고 예정

< 관련 보도내용 (뉴스1 12.6) >

◆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더니...” 해외건설 현장훈련 예산 ‘쥐꼬리’

- 정부의 OJT 지원사업 내년예산이 28억원 정도에 그쳐 청년 일자리 지원 규모를 늘리기엔 역부족
- 전문가들은 해외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해외 진출 유도를 위해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해외건설정책과 문현규 서기관(☎ 044-201-35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